



A registered Political Party
ECI Registration No. 56/89/2011/PPS-I

마이 히 바라트 선언문

닥터 수보드 찬드라 로이
 M.Sc., Ph.D., LL.B.
 국가 회장

바라트, 즉 인도는 스스로를 독립적이고 주권을 가진 민주 국가로 선포한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다수의 의지에 따라 통치하며, 그들의 바람을 실현하는 것을 요구한다. 만약 우리가 바라트를 기능하는 민주주의로 받아들인다면,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수의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백만을 괴롭히는 만연한 굶주림, 문맹, 실업, 그리고 건강 악화, 법적 권위를 가장한 국가의 변덕스럽고 자의적인 행위, 그리고 사회 모든 수준에 만연한 부패—이 모든 것은 우리의 절대적이고 의심 없는 침묵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라는 가면극이 진실이라면, 이러한 혐오스러운 현실은 우리의 명백하고 집단적인 동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아버지가 가족에게 양식을 제공하듯이, 농부들은 온 나라를 먹여 살린다. 이는 논리적으로 농업 공동체 전체를

"국부(國父)"라는 정당한 칭호로 격상시킨다. 그러나 수십만 명의 농부들이 굶주림과 빚에 시달려 자살로 내몰리는 끔찍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이른바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바라트는 도대체 이 극심한 수치를 어디에 감출 수 있는가? 이 냉혹한 모순은 단 하나의 설명만을 허용한다. 민주주의라는 가면 아래, 이 나라의 국민들은 지속적이고 경멸스러운 가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핵심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만연한 부패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대중은 이를 국가 발전의 주요 장애물로 지적하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수십억 루피가 부정하게 해외로 유출된 자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는 이 나라 대다수가 본질적으로 부정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러한 시스템이 이른바 민주주의 안에서 지속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려면 기존의 법적 통로를 거쳐야 하며, 이는 대다수가 이 약탈에 암묵적으로 동의했음을 암시합니다. 구멍 난 항아리는 물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항아리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이 결함 있는 시스템을 고치거나 대체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낭비가 계속되고 더욱 만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에서 염분을 제거할 수 없듯이, 이 나라에서 부패를 근절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불의가 이 국가의 근본 토대이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는 규칙과 규정의 진정한 목적을 살펴보아야 한다. 수 세기 동안, 영국은 이 땅을 지배하며 오직 하나의 목표에 집중했다. 바로 이곳의 자원을 방해받지 않고 착취하고 약탈하는 것이었다. 마치 피를 더 쉽게 뽑아내기 위해 신체의 사지를 묶는 것처럼, 바라트바르샤의 국민들은

수많은 법에 의해 묶여 있었다. 이 법들은 결국 그들을 영국 제국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이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독립을 꿈꾸며 처형과 같은 형언할 수 없는 고문을 견뎠다. 식민 지배자들은 편자브 잘리안왈라 바그에서 수천 명의 비무장 민간인—남성, 여성, 아이들을 무차별 총격으로 학살하는 데 어떠한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이 끔찍한 행위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법"이란 것이 영국 의회에 의해 이 땅의 국민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모든 개념을 제거하기 위한 명백한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수많은 책들이 1947년 8월 15일, "인도"라 불리는 영토가 독립 국가로 탄생하며, 존경받는 독립운동가들의 꿈을 실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날은 수많은 다른 영국 법률과 마찬가지로 단지 또 하나의 법률, 즉 ***인도 독립법(Indian Independence Act, 1947)***이 발효된 날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 묻는다면, 실제로 이 법을 직접 본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단지 신문에서 읽거나 라디오로 그날 나라가 "독립"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법은 "인도"를 독립 국가로 설립하지 않았다. 이전의 영국령 "인도" 영토 내에서 이 법은 단지 두 개의 "새로운 도미니언"—"인도"와 "파키스탄"—을 창설했을 뿐이다. 이전에 하나였던 식민지 "인도"는 단순히 두 부분으로 나뉘었고, 이는 행정적 편의를 위해 두 개의 식민지를 만든 것에 지나지 않았다. 법적 용어로는 이를 "새로운 도미니언"이라고 불렀다. 무엇보다도 이 법은 각 도미니언의 행정 수반인 총독(Governor-General)을 선택할 권한이 해당 도미니언 국민들에게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대신, 1947년 인도

독립법(**Indian Independence Act, 1947**) 제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영국 군주가 총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놀라운 사실은 "인도 독립법(**Indian Independence Act**)"이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법 조문 어디에도 "독립(**Independence**)"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년 전인 1946년, 영국 정부는 도미니언을 위한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제헌 의회를 설립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제헌 의회의 구성원 중 누구도 "인도 시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인도 시민(**Citizen of India**)"이라는 용어는 1950년 1월 26일 발효된 ***인도 헌법***에서 처음 등장했다. 따라서 최소한 그 날까지만, 영국 영토의 모든 주민들은 법적으로 영국 신민(**British subjects**)이었다. 결과적으로, 그 헌법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본질적으로 영국 군주의 의지에 종속되어 있었다.

현재 이 헌법은 이 나라의 최고 법률로 남아 있으며, 설령 자유로운 시민들이 새로운 헌법으로 대체하고자 하더라도, 이는 불가능하다. 이는 헌법의 "기본 구조"를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차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그 대법원 역시 바로 그 헌법의 조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전의 식민지 지배자들이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정확한 메커니즘까지도 지시했다는 의미다. 이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독립은 어디에 있는가? 이를 좀 더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보자: 한 땅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가 "자비"를 베풀어 그 땅에 오두막을 지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구매자는 그 땅을 사고 나서 그 오두막에 살아야 한다. 구매자는 필요하다면 오두막을 수리할 수 있지만, 오두막을 철거하고, 예를 들어 콘크리트 집을 짓는 것은 철저히 금지된다—즉, "기본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거래 완료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면, 법적으로 이 거래는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판매자가 땅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대륙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던 시기에,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위기를 헤쳐 나가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자. 그러나 그런 경우라면, 헌법에는 "독립" 이후 의회가 헌법을 비준하고, 필요하다면 구 헌법을 대체할 새로운 헌법을 만들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포함되어야 했다. 그러나 분명히도, 헌법에는 그런 비준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인도"라는 영국 도미니언을 위해 설계된 헌법, 즉 영국 군주에게 적합한 헌법이 국민들에게 이 나라의 최고 법률로 강요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우리 존경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바라던 꿈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바라트 국민을 영국의 지배와 착취로부터 해방하는 것이었다. 이 해방을 위한 근본적인 요구는 영국 신민을 영원히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영국이 만든 억압적인 족쇄인 "법"을 해체하는 것이었다.

1947년 8월 15일과 1950년 1월 26일 이후에도, "인도"라 불리는 이 영토에서 대다수의 영국에서 만든 법들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했다. "헌법" 내의 조항을 통해, 이러한 영국식 법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어, 수세기 동안 국민들을 움직일 수 없게 했던 동일한 제약들을 계속 유지했다. 그 결과, 이 나라는 여전히 무자비하게 약탈당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법에 의해 교묘히 속박당하고 있다. 현재 추정에 따르면, 인도 법원에서는 언제나 약 3천만 건의 사건이 대기 중이다. 각 사건에 적어도 10명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바라트에서는 약 3억 명이 지속적으로 법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매년 반복되는 이른바 "포용적 성장"에 관한 수많은

연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1947년 8월 15일 이전에는 비폭력적인 시위와 폭력적인 시위 모두가 영국 지배에 대한 반항의 일상적인 모습이었고, 왕실 경찰은 자유 투사들을 잔혹하게 박해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대응을 했다. 당시에는 경찰이 왕의 하인으로서 주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바라트가 정치적으로 독립했다고 주장하는 지금도 비슷한 경찰의 만행이 여전히 만연한 것은 심각하게 우려되는 일이다. 만약 이 독립이 진정한 것이라면, 경찰은 이제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가? 만약 민주주의가 정말로 국민을 이 땅의 주인으로 만든 것이라면, 왜 이 국민들은 여전히 시위를 벌이고 있는가?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만든 법을 왜 스스로 어기고 있는가? 이제는 이 질문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이 왔다. 그리고 바로 이 땅의 국민들, 모두가, 인간으로서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인간이 거주하는 영토가 우리가 "국가"라고 부르는 것이다. 인간이 없다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달은 그 넓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니다. 이는 "인간"과 "국가"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논리적으로, 그러므로 국가의 발전은 그 국민들의 발전을 반영해야 한다. 국가가 그 구성원들을 뒤로 두고 발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대다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설정된 발전 척도에서 "뒤처져 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의도적인 왜곡이다. 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차별을 지속하기 위해, 대다수는 의도적으로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다. 사회가 시작될 때부터, 특권을 가진 소수가

노동하는 대중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차별의 씨앗은 신중하게 뿌려졌다.

만약 필수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결집한다면, 특권을 가진 소수는 더 이상 사회의 대다수를 지배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구 사이에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그들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약화시켰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들이 수세기 동안 겪어온 고통에 대해 좀처럼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패턴은 특정한 뿌리 깊은 전통적 사고방식이 급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그리고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바로 국민들 자신에게 있다. 나라를 변화시키려면,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이 없다면,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다. 따라서, 국가 내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책임은 바로 국민들 자신에게 있다. "우리"가 "나"의 복수형이라면, 본질적으로 나는 바로 국가이다. 나는 그것을 직접 창조했다. 나 없이는,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작은 생각이 정말로 이 나라의 현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확고하게 '예'다. 왜냐하면 "나"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반박할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사람들의 고통은 오래 전에 끝났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게다가 나라가 상당히 발전했고, 우주 기술에서도 눈에 띄는 진전을 이뤘다. 당신의 논리에 따르면, 이는 사람들의 생활 조건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의미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이 발전의 혜택은 인구의 극히 일부만이 누리고 있으며, 대다수는 여전히 배제된 상태이다. 기아, 영양 실조, 자살은 여전히 대다수 사이에서 만연하다. 이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나는 국가다"라는 생각이 아직 사회에 깊이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의식의 부족이 국가의 참담한 상황이 변하지 않는 원인이다. 만약 국민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자비한 착취 위에 구축된 사회 시스템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수의 착취자들은 이 생각을 유토피아적이라고 고의로 일축한다. 그들은 만약 국민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진정한 위치를 인식하게 된다면, 그들의 부패한 구조가 카드 집처럼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이 생각이 유토피아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문명화된 시스템을 해체하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명백한 길을 숨기기 위해, 초기에부터 대다수의 사람들을 문맹과 가난의 어둠 속에 가두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는 이 길을 찾을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고, 우리 모두는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이 나라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상황을 복잡한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 이해하려면, 큰 집에서 활기찬 축하가 열리고 있는 비유를 사용해보자. 밤이 되고, 집은 밝게 불이 켜져 있고, 손님들은 즐기고 있다. 갑자기, 악의적으로 누군가가 주요 전력 공급을 차단한다. 그 순간, 집 전체는 어둠에 휩싸이고 즉시 혼란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며 탈출하려 하지만, 어둠은 그들을 방해하고, 혼란과 공황에 빠지게 된다. 사람들은 서로 넘어지고, 가구가 넘어지며, 전반적인 무질서가 지배하게 된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된다: 이 끝이 없어 보이는 혼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전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혼란을 해결하는 것이 믿을 수 없이 어려워 보일 수 있다. 일부는 이 상황을 악의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특성 때문이라고 돌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결책은 놀랍게도 간단하다: 주요 전원 스위치를 다시 "켜기"만 하면 된다. 빛이 돌아오면 어둠으로 인한 혼란은

즉시 사라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넓은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의 마음 속 무지의 어둠 속에 숨어 있다. 이 무지가 없애지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들은 끝없이 지속될 것이며, 우리는 서로를 적으로 보고 친구로서 서로를 인정하지 못한 채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아무도 의도적으로 불을 꺼놓은 것이 아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총체적인 인식의 빛은 결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세계의 대부분 사람들이 독립적인 사고를 빼앗겨 온 이유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 즉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힘을 인식하는 일을 위해 헌신할 결심을 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우선, 이 나라의 이름을 살펴보자. 고대부터 이 땅은 "바라트바르샤"로 알려져 있었다. 신드후 강 유역에서 번영한 문명은 외국에서는 '인더스 문명'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문명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 이 땅의 남부에는 이미 매우 발전된 문명이 존재했으며, 그 증거는 '라마야나'에 묘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침략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더스 문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이 땅 전체를 포함시키고, 이 나라의 이름을 "인디아"라고 지었다. 이상하게도, "독립" 이후에도 이 위대한 고대의 땅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인디아"라고 불리고 있다. 개인이 여러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의 땅에 두 개의 공식적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인디아"와 "바라트"라는 두 이름이 공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깊이 내재된 종속성의 뚜렷한 예는 헌법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헌법에서는 이 나라를 "인디아, 즉 바라트"라고 명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바라트, 즉 인디아"라는 표현이 아니라 "인디아, 즉 바라트"라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우리의 옛 영국 지배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디아"라는 이름이 우선시된 것일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독립을 선언했다면, "바라트"를 우리의 유일한 국가 이름으로 채택하고, "인디아"는 거부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마하바라트"를 연구했지만, "마하인디아"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제 우리는 "인디아"라는 용어를 우리의 바라트에서 추방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과거 노예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인식의 촛불이 결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유를 경험한 적이 없다. 조직적인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통치 권력은 "왕"의 손에 쥐어졌다. 그의 명령은 법이 되었고, 그의 말은 최종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의 "왕권"이, 모든 법의 기초가 된다고 여겨지는 그 왕권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것이다. 복잡하거나 우아한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 사회가 형성되기 전의 선사시대의 하루를 상상해 보자. 작은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는 망고나무 한 그루가 있다. 한 남자는 나무를 타고 망고를 따고 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남자가 물고기를 잡고 있다. 그러던 중 세 번째 남자가 등장한다. 잠시 그들을 관찰하던 그는 나무 위의 남자에게 다가가 물었다. "친구, 너는 무엇을 따고 있니?" 그 남자는 대답했다. "과일이요. 하나 드셔 보시겠어요?" 낯선 남자는 익은 망고를 받아 맛있게 먹고, "망고-man"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후, 물고기를 잡고 있는 남자에게 간다. 비슷한 대화 후, 그는 "물고기-man"에게서 물고기를 선물로 받고 고마워한다.

다음 날, 낯선 사람은 친구를 데리고 돌아온다. 그들은 먼저 망고를 따는 사람을 방문한다. 새로 온 사람도 망고를 먹고

싫어 한다는 말을 듣자, 나무에 있던 남자는 더욱 열정적으로 과일을 나누어 주며 이를 기쁘게 생각한다. 그들은 그 다음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을 찾아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이때 주목할 점은, 망고와 물고기를 아무런 노력 없이 먹으면서, 낯선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보다 거의 두 배의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은 나무를 타거나 물고기를 잡는 데서 에너지를 절반 정도 소모하는 반면, 낯선 사람들은 아무런 에너지도 소모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노동의 열매를 소비함으로써 점차 더 강력해진다. 그의 힘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한때는 호의로 주어졌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강제적인 "보호금"으로 변하고, 궁극적으로 그는 법을 제정하는 자, 즉 왕이 된다. 이것이 바로 왕이 "법의 지배"라는 명목 하에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 교활한 인물은 속임수를 통해 그의 "왕권"을 시작했다. 즉, 불법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한때 선의로 주어졌던 자비로운 행위들이 점차 세금으로 강제로 징수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며, 그 중 하나가 현재 거의 경전처럼 여겨지는 경제학이다. "힘이 곧 정의"라는 원칙이 지배적이므로, 왕은 결코 잘못할 수 없으며 항상 의심의 여지 없이 옳다고 여겨진다. 주권자의 명령은 곧 법이며, 법을 따르는 신민들은 왕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람들은 왕의 주권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한 강제에 의해 복종하게 되었다. 그러나 왕은 자신의 존재가 전적으로 복종하는 신민들의 존재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 신민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의 진정한 출처이며, 모두 평등하고 하나의 인간 가족에 속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착취적 시스템이 처음부터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켰다. 부자와 가난한 자, 교육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고위층과 하위층의 구별을

넘어, 무수히 많은 인위적인 범주들이 철저하게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종교와 계급이 발명되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본래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는 무수히 많은 집단으로 분열되었다. 순진한 신민들은 쓸데없는 내분에 몰두하면서, 왕의 교활한 작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군주제의 축수가 인간 사회를 완전히 삼킨 방식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가난하다"는 표현은 잘못된 명칭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면, 예를 들어 석탄 광부와 같은 사람은 "가난하다"고 불린다. 그는 매일 생명을 위협하며 광산에 내려가 석탄을 채굴한다. 석탄 없이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을 수 있을까? 석탄에 의존하는 거대한 산업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결국, 이 거대한 부의 진정한 원천은 바로 그 "가난한" 노동자들이다. 그렇다면, 그런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 "가난하다"고 부를 수 있을까?

이제 "미교육"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자칭 "교육받은" 사람들로써 어떻게 농부나 구두 수선공을 미교육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우리는 농부나 구두 수선공이 쉽게 해내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기술에서 오히려 무식한 것이 아닌가? 그들이 종종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누군가의 다리를 고의로 부러뜨려 놓고, 그가 "불행"에 처했다고 동정하는 것과 같다.

이른바 민주주의는 군주제에 뒤이어 나타났다. 왕의 권력에 대한 질투심에서 일부 사람들은 권력을 장악하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진정한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들어 있는 "demos" (민중)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국가의 일을 직접 관리한다고 표면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현실은 "민주주의"도 사실 군주제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다. 유일한 차이점은 군주제에서 한 명의 왕이 있었던 것과 달리, 민주주의에서는 여러 명의 "장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노예제의 족쇄가 왕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처럼, 이른바 민주주의에서도 국민을 계속 착취할 수 있도록 군주제 시대의 모든 법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이 부를 창출하는 역할은 군주제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왕이다"는 민주주의의 대중적인 주장은 현실과는 전혀 무관한 시적인 공상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대표가 나라의 일을 "지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치당에 의해 선택된 몇몇 인물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집권당"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유"를 얻은 후에 어떻게 "지배자"가 존재할 수 있는지, 또는 민주주의에서 "정부"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 나라에서는 1951년 "국민대표법"에 따라 선거가 치러지지만, 이 선거에 "출마"하는 이들은 국민의 진정한 대표가 아니다. 거의 모든 경우, 그들은 어느 정당에 의해 통제된다. 따라서 그들의 주요 책임은 국민이 아닌, 그들의 정당에 있다. 모든 선거 후보자들이 국가 시민들의 복지를 우선시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또한, 정치당들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하고 잘 정의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경쟁이 이렇게 치열할까? 간단한 비유를 생각해 보자: 여러 사람이 집을 칠 가장 좋은 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흰색을 제안하고, 또 다른 사람은 분홍색, 또 다른 사람은 회색을 제안할 수 있다. 그들 모두는 아마도 집을 아름답게 만드는 공통된 목표를 가질

것이다. 그들이 적이 아니라면, 왜 정치에서는 이 같은 협력 정신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것은 상호 적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착취적인 현 상태를 지속시키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진정한 진보와 국민의 조건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약점의 근원을 먼저 없애야 한다.

우리는 종종 한 개인이 어떻게 전체 시스템의 관성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 합니다. 첫째, 우리는 현재 국가의 상태가 우리의 집합적 무위에서 직접적인 결과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관성은 우리가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 불가피하게 끝날 것입니다. 둘째,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13억 3천만의 "나"들이 모여 오늘날 "인도"를 구성합니다. 각 "나"는 다른 "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마치 인간의 몸을 이루는 수많은 세포들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다치면 온 몸이 즉시 반응하고, 수조 개의 세포가 함께 힘을 모아 침해에 맞서 싸웁니다. 이는 세포들이 서로 연결될 때 그 한 세포가 발휘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는 우리가 대부분 인식하지 못한 거대한 힘의 방대한 저장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같은 가족의 일원이며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집단적 의식은 깨어날 것이다. 이상적인 가족에는 부패할 자리가 없듯, 우리나라에서도 부패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문제를 나누듯, 우리도 이 나라 어디에서 발생하는 문제든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어디서든 아무도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사람들의 마음에서 증오, 질투, 시기와 같은 모든 원인이 동시에 사라질 것이다.

인류의 위치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돈은 부차적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반대가 사실이므로, 우리는 돈의 역할을 의식적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인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하며, 돈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잘못된 명칭이므로, 이 이상적인 시스템에 새 이름을 부여해야 합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존재이므로, 우리는 'GANASATTA'라는 용어를 뱅골어로 만들어, 이러한 상태에서 국민이 국가 관리의 모든 측면에서 최고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역할은 "유권자" 또는 "선거인"에 불과하며, 실제로 그들을 지배할 권력은 "선출된" 대표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자들이 "선출"되면—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공정하든 부정하든—그들은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고, 국민은 그들의 불행을 조용히 지켜보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GANASATTA 하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국민은 선거 후에도 자신의 진정한 권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적절한 선거법 개정이 관련 당국에 의해 제정되어, 선출된 대표자가 오직 유권자의 뜻에 따라 직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언제든지 선출된 대표자를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부패의 뿌리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소환 가능성만으로도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상황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GANASATTA가 확립되면, 우리 각자는 점차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다른 이들의 복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위에 있지도, 아래에 있지도 않으며, 모두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서로 간에 적대감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간 몸의 수조 개의 세포들 사이에 적대감이 없듯이 말입니다. 발,

뇌, 그리고 몸의 모든 다른 부분이 동일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에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조화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래전부터 "왕"들이 사람들이 단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적 표식과 분류를 통해 인위적으로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다채로운 슬로건 아래 숨겨진 진정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진정한 인간이 깨어나 자리를 잡고 나면 **GANASATTA**가 확립될 것이며, **GANASATTA** 속에 세계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Mai Hee Bharat**" (나는 **Bharat**이다)라는 정치당이 결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가족에 속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장애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함께 나아가자고 우리와 함께해주세요. 이 나라의 미래—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그려내는 그대로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없이는—나 없이는—**Bharat**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이 히 바랏

마이 히 바라트 헌법 발췌

제2조. 목적과 목표

당의 중심 목표는 **Bharat**의 모든 국민을 하나의 대가족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의 모든 구성원은 종교, 인종,

계급, 성별, 사회적 지위 등 그들을 영구적으로 나누게 하는 외부적이고 인위적인 구별의 표시를 무시하고, 모든 면에서 평등한 개별 자연인으로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당은 **Bharat**에 거주하는 인간들의 고통의 근본 원인이 대다수 사람들이 항상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나머지 인구를 단순한 숫자로 취급하며 그들만의 선택에 따라 국가의 일을 조종하는 데 있다는 믿음을 확고히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물질적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직접 상황을 지휘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Bharat**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인간이 거주함으로써, 한 지역은 국가로 변모합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모든 개별 거주자는 실제로 **Bharat**와 동의어입니다. 그가 바로 **Bharat**임을 깨닫는다면, 각 개인에게 국가 건설이라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엄청난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의 이름은 "**MAI HEE BHARAT**"입니다.

이 중심 주제에 의해 이끌리며, 당은 다음과 같은 행동 계획을 수행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개인 인간의 주권에 최대한 존경을 표하고, 각 개인이 공통된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명령 없이는 이 나라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이 나라의 주인임을 인식합니다;

빈곤, 무지, 사회적 차별 등은 개인들 간의 적대감을 일으키는 마찰의 원료일 뿐이며, 이를 통해 개인들이 착취를 위해 영구적으로 지배 상태에 놓이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인식합니다;

그가 가난하다고 묘사되는 개인은 사실 가난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는 유일한 부의 원천임을 인식합니다;

식민 지배 하에 "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주체들의 노예화 장치는 여전히 완전히 작동하며,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 모든 흡혈하는 착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또한, 어떠한 기존 시스템도 사람들의 공동된 소망에 종속되어야 하며 지배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이 히 바라트'는 모든 면에서, 각기 바라트의 모든 거주자가 강력한 자신감으로 나라의 일을 돌보는 위치에서 기꺼이 나서도록 촉구하며, 현 사회, 경제, 정치, 법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열정적으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